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국 부채, 50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

[미국 금융]

- WSJ: 25년 만에 최고의 2년을 보낸 미국 주식

[오일/에너지]

- Bloomberg: 2024년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
- CNBC: 천연가스 20% 급등, 미 동부 추위로 인한 수요 증가 예상

[부동산]

- WSJ: 애틀랜타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한다”

[반도체]

- WSJ: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는 중국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서비스 활동,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세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Treasury’s Elite Bond Dealers Will Struggle to Handle \$50 Trillion Debt

미국 부채, 50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

-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atWest Markets 미국 고객 영업 및 거래 책임자 Casey Spezzano는 “지난 10년 동안 발행량이 거의 3배 증가했다. 향후 10년 동안에도 발행량이 2배 늘어난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주요 딜러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 회사와 고위 정책 입안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팬데믹 초기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했던 것처럼 국채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미국 국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엘리트 프라이머리 딜러 네트워크(elite network of primary dealers)에 대한 인기도 줄어들고 있다.
- 국채차입자문위원회(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는 프라이머리 딜러의 중개 능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으며, 미국 부채의 증가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Stocks on Pace for Best Two Years in a Quarter-Century
25년 만에 최고의 2년을 보낸 미국 주식

-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주가지수는 25년 만에 최고의 2년을 보냈다. S&P500지수는 24% 상승했다. 견조한 미 경제와 AI에 힘입은 대형 기술주의 랠리 덕분이었다.
- 금융 부문 주식은 한 해 동안 28% 상승했다. 유틸리티 부문은 26%, 산업 부문은 16% 상승했다.
- 투자자들은 내년에도 주식 시장이 호황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essemer Trust 최고 투자 책임자 Holly MacDonald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인프라와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FactSet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S&P500 기업의 2024년 성장률은 9.5%이며, 2025년에는 15%일 것으로 예상했다.
- Hirtle Callaghan & Co의 최고 투자 책임자 Brad Conger은 “주가가 매우 높다. 이제 기업은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오일/에너지]

Bloomberg: Oil Heads for Modest 2024 Decline as Traders Brace for Surplus
2024년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

- 원유 시장은 연말 거래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2024년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그렸다. 투자자들은 2025년 글로벌 흑자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1분기 글로벌 원유 시장의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4달러에서 거래됐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 하지만 달러 강세를 비롯한 요인들이 여전히 유가를 압박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작년 대비 4% 하락하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 2025년 석유 시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PEC+의 증산 계획은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 문제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Natural gas surges as much as 20% on expectations for colder-than-usual January on the East Coast

천연가스 20% 급등, 미 동부 추위로 인한 수요 증가 예상

- 어제 월요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월 선물 가격은 20% 상승해 천 입방 피트당 4.201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월 4일 이후 최고치다.
- 2025년 1월 미국 동부 기온이 더 추워질 것이란 보도 때문이었다. AccuWeather 기상학자들은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상당한 눈과 우박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난방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9%, 올해 들어 약 58% 급등했다.

CNBC 기사

[부동산]

WSJ: The Data-Center Boom Eats Up a Lot of Land. Atlanta Says It's Gone Too Far.

애틀랜타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한다”

- 애틀랜타는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 땅을 잡아먹는다고 비판했다. 토지 사용에 있어 다른 부동산 수요와의 경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총재고가 43% 증가했다. AI가 모델 훈련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같은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일부 건물 소유주에게는 도움이 되어 있다. 비어 있는 층을 기업들에게 임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애틀랜타주 의원들과 주민들은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주택 부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반도체]

WSJ: Beijing Pushes to Use China-Made Chips in Its EVs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는 중국

- 자동차에는 많은 반도체가 사용된다. 자율주행 등을 위한 고급 반도체 외에도 문을 닫거나 엔진을 키는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구식 반도체도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구식 반도체 시장을 저렴한 중국산 반도체가 점령하고 있다.
- 2023년 자동차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 반도체는 5천3백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차량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11월까지 중국에서 판매된 2천만 대의 자동차 중 약 절반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다.

- 미국은 자동차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국의 저가형 칩 생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시장 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관련 산업 정책을 거의 비밀에 부치고 있다.

WSJ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s Services Activity Jumps as Stimulus Lifts Local Demand

중국 서비스 활동,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세

- 중국 서비스 활동이 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도 3개월 연속 성장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있어 국내 수요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12월 발표된 공식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non-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52.2로 예상 이상이었다. 제조업 PMI는 50.1이었다. PMI가 50을 넘으면 해당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 이 같은 지표는 트럼프 새 행정부와와의 무역 전쟁을 앞두고 내수 시장 강화가 필요했던 중국 정부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Capital Economics 이코노미스트 Gabriel Ng는 “중국 정부의 연말 추가 경기 부양책은 분명 단기적인 성장 촉진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효과가 몇 분기 이상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과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내년 미국 S&P 500 지수 '10% 상승' 가능할까 "블룸버그 집계 금융기관 26곳 목표가 평균치 6,508"

올해 강세장을 펼친 미국 증시가 내년엔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내년 1월 지수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나오지만, 월가 26개 금융기관의 내년 목표가 평균치는 여전히 10% 이상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 전장보다 63.90포인트(-1.07%) 떨어진 5,906.94로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1.19%)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97%)도 내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